

사실 이 책을 아홉마가 읽는 건 곤욕이다. 갓 잡은 순록 위장 속의 소화 덜된 음식을 탐내는 이누이트족이나 오줌을 벌척벌척 들이킨다는 주니족, 짐승의 똥물을 음식에 소스를 바르듯 뿌려먹는다는 필리핀 원주민의 이야기, 그밖에 변소의 역사나 인간의 배설물을 먹거나 바르는 이야기를 읽다가 때가 되면 밥을 하고 반찬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읽던 책을 덮고 부엌으로 가야 할 때면 웬지 손을 더 깨끗이 씻어야 할 것 같은 생각까지 들곤 했다.

인간과 짐승의 배설물 관습 진지하게 묘사해

그렇다고 이 책 《신성한 똥》(까치)의 내용이 특별히 혐오스럽거나 한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간과 짐승의 배설물에 얽힌 여러 관습을 묘사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시종일관 진지하고 담담한 지은이의 태도 때문에 뒤로 갈수록 평정을 되찾게 된다. 무엇보다 분노의식을 미개인들이 벌이는 역겨운 의식이라는 편견으로 보지 않으려는 지은이의 태도에 호감마저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분뇨주의자들'이라는 장에는 기독교에 남아 있는 분노의식의 잔재가 은근히 드러나 있다. 아기 예수의 기저귀를 머리에 얹은 소년의 입에서 악마들이 튀어나와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신성한 오물로 악귀나 병을 물리치는 여러 부족의 분노의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기독교도들이 이 책에서 다른 모든 지저분한 일에서 자신들이 비껴 있다고 호못해할 것을 예견했으면 서도 더 오래 전에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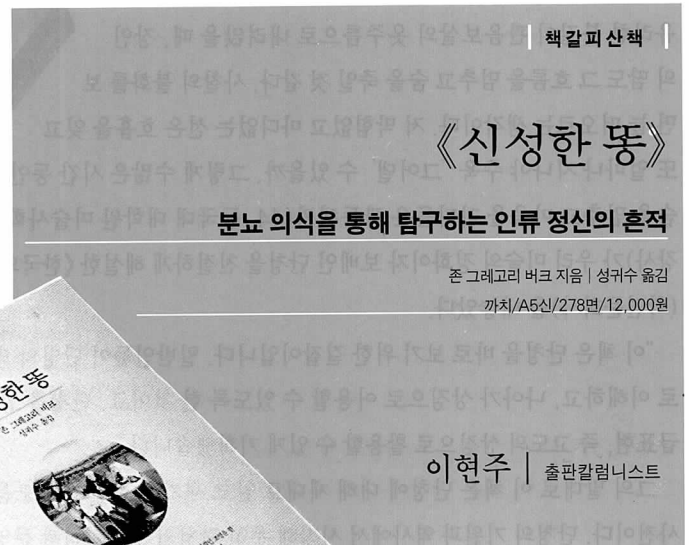
16세기까지 계속된 파리의 광인축제, 통통한 암뱀자에 올라타 역겨운 순대를 들고 있는 교황의 모습을 그린 종교개혁 초기 독일의 기록,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제의들은 종교가 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공유했던 기념제 혹은 제의의 어렴풋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분노의식 연구는 인류 정신의 흔적을 찾는 일이 된다.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기억 속에 저장해둬야만 했던 중대한 역사였거나 금기였거나 한 일들의 흔적.

더러운 것으로 전이되기 전 똥의 상황 보여줘

또한 인간 혹은 짐승의 배설물은 약으로 쓰이거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약으로도 쓰였고, 마법이나 주술, 통과제의의 재료로도 사랑받았다.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구석구석 온갖 부족들의 희한한 의식들을 살펴보고자 하면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답이 어딘가에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겼지만 지은이는 끝내 그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 이런 말을 흘려놓을 뿐이다.

주니족의 오줌춤이 "해당부족의 거의 잊혀진 어느 에피소드를 극화시킨 것"이 아닐까, 희생제 의에서 "봉헌물들의 가치가 점점 낮은 단계의 생물로 전이"되다가 "인구증가와 더불어 짐승이 점점 귀해지자 그

이 책은 인간과 짐승의 배설물과 관련된 관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러운 것으로 치부되기 전에 똥은 약으로 쓰이거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약으로도 쓰였고, 마법이나 주술, 통과제의의 재료로도 사랑받았다. 지은이는 이런 분노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통해 인간 정신의 흔적을 추적해 들어간다.



배설물로 제물을 대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들러 말한다. 그리고 보니, 이런 의식들이 전혀 낮은 것만은 아니다. 어릴 때 모기에 물리면 엄마는 그 자리에 침을 발라줬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세 가렵지 않았다. 20세기의 끄트머리였던 1990년대에 한 대학친구가 군대에서 다리뼈가 부러진 친구에게 시골에 사시는 그의 부모님이 정성스레 모은 똥물을 배달하던 것을 본 적도 있다. 시체의 다리를 잘라내거나 자신의 생살을 베어 죽어가는 부모를 살렸다는 옛날 효자들도 떠올랐다.

오래 전 인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간의 정신 속에 무엇인가 불결하고 거북스러운 대상에 대한 관심이랄까, 믿음 같은 것이 엄존"하게 된 까닭이 따로 있을까. 책을 다 읽고서도 해결하지 못한 의문을 안고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의 엉덩이에 묻은 똥을 딱 주무르듯 하고 있자니, 불현듯 왜 아이의 똥을 더럽게 여기지 않는 엄마의 행동은 연구대상에서 빠져있을까 싶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많고 많은 물질 가운데 배설물이나 타액, 혈액이나 내장 같은 것이 더럽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전이되기 전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엄마는 모든 것을 아이의 일부로, 그래서 그 모든 것(특히 지저분한 것)을 포함한 어여쁜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